

이 자료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휘발유 교통세 인하 건의

-대한석유협회-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IMF 이후 크게 상승한 이래 현재 리터당 1,244원(11월 3째주 한국석유공사의 모니터링 가격 기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8%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수준 및 세금 비중은 OECD가입국 중 상위권에 속하며, 세금비중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내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OECD 비산유국 평균인 63.9% 보다 높은 실정임.


이같이 높은 세금 비중은 휘발유 소비자들의 부담가중과 물가불안 등으로 직결될 뿐 아니라, 탈세를 목적으로 한 가짜 휘발유 유통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국내 유가 변동요인 발생시 국제 유가 하락 폭에 비해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낮아 이에 대한 불만이 폐 업계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실질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 원가부분이 소비자 가격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약3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하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최근 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승용차, 에어컨, 레저용품 등 공산품의 특소세를 인하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까지 인하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필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 계속 높은 수준의 특소세(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특소세 부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번 단행한 특소세 인하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인하가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폐 업계는 판단하고 있음.

이에 폐 업계는 휘발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 완화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등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휘발유 교통세를 IMF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림. 



[별첨 1]

국내 휘발유 세금 구성비율 현황

(2001.11월 3째주 기준)

(단위:원/ℓ)

구분	실제가격기준	구성비	비고
※공장도 가격①-② (세금등 부담금 제외)	287.38	23.1%	
세전 공장도 가격①	311.81	25.1%	
-관세	10.31	0.83%	원유CIF의 5%
-수입부과금	14.00	1.13%	ℓ당 14원
-품질 수수료	0.122	0.01%	ℓ당 0.122원
(제세 공과금 계) ②	24.43	1.96%	
정유사 판매가격	1,161.20	93.3%	
-교통세	588.00	47.3%	ℓ당 588원
-교육세	88.20	7.09%	교통세의 15%
-주행세	67.62	5.44%	교통세의 11.5%
-부가세	105.56	8.49%	세후공장도의 10%
(세금 계)	849.38	68.3%	
대리점 가격	1,168.17	93.9%	
-대리점 마진	6.34	0.51%	
-부가세	0.63	0.05%	대리점 마진의 10%
소비자 가격	1,243.95	100.0%	
-주유소 마진	68.89	5.54%	
-부가세	6.89	0.55%	주유소 마진의 10%
제세 부담금 총계	881.34	70.8%	
제세 부담금 비중	70.8%		

주) 1) 원유(CIF 24.92\$/B), 환율(1,315.4원)은 2001.10월 실적 적용

2) 실제 가격은 한국석유공사의 2001.11월 3째주 모니터링 가격임(S-Oil 포함)

3) 구성비는 소비자 가격대비 각 항목별 구성비임.

[별첨 2]

OECD 가입국 유가현황

	기준일	휘발유 소비자가격	세 금	세금비중
영 국	'01. 8	1,519	1,143	75.3%
독 일	'01. 8	1,119	810	72.4%
프랑스	'01. 8	1,178	848	72.0%
한 국	'01. 11	1,244	881	70.8%
벨기에	'01. 8	1,133	785	69.3%
네덜란드	'01. 3	1,414	973	68.8%
스웨덴	'01. 8	1,168	799	68.5%
덴마크	'01. 8	1,244	851	68.4%
노르웨이	'00. 3	1,647	1,123	68.1%
핀란드	'01. 8	1,314	886	67.5%
이탈리아	'01. 8	1,216	806	66.3%
오스트리아	'01. 8	1,056	657	62.2%
스페인	'01. 8	942	563	59.8%
룩셈부르크	'01. 8	914	532	58.2%
아일랜드	'01. 8	1,098	633	57.6%
그리스	'01. 8	855	476	55.7%
일 본	'01. 8	1,140	626	54.9%
멕시코	'01. 7	789	417	52.9%
호 주	'00. 6	657	341	51.9%
포르투갈	'01. 8	1,060	490	46.2%
뉴질랜드	'01. 1	622	278	44.7%
캐나다	'01. 6	639	261	40.8%
미 국	'01. 9	532	149	28.1%
평균가격		1,051	638.68	59.0%
비산유국 평균		1,123	717.67	63.9%

주) 1) 자료 : Energy Detente (2001. 9)

2) 환율은 1,315.40 원/\$ 적용 (10월)

3)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스위스, 터키 제외"